



미국 건강보험회사 M&A 가속화와 시사점¹⁾

최 원 선임연구원

■ 2014년 오바마케어(Obama care) 시행 이후 M&A를 통한 미국 건강보험회사들의 시장체제 개편이 이루어지고 있음.

- 미국 최대의 건강보험회사인 유나이티드헬스그룹(UnitedHealth Group)은 M&A에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 왔으며, 2007년부터 인수한 회사 규모는 650억 달러에 달함.
-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앤섬(Anthem)은 2012년 아메리그룹(AMERIGROUP)을 49억 5,500만 달러에 인수한 데 이어, 최근에는 5위 규모의 시그나(Cigna)를 54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결정함.
- 매출 규모 3위의 애트나(Atena)는 2012년 코벤트리헬스케어(Coventry Health Care)를 56억 9,000만 달러에, 2015년에는 매출 기준 4위의 휴머나(Humana)를 37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함.
- 2015년 M&A 경쟁이 가속화되어 매출 기준 5위 안에 해당하는 건강보험회사 중 4개 업체가 2개로 통합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미국 건강보험시장은 대형 3사 체제로 재편될 것임.

■ 미국 건강보험회사들이 M&A를 통한 규모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은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수익성 제고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임.

- 오바마케어 시행 이후 가입자는 늘어나고 있으나, 건강보험회사들은 정책적인 문제로 인해 이전과 같은 세분화된 언더라이팅을 하기가 어렵고 가입자 유치 경쟁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어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음.
 - 오바마케어는 대다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건강보험회사들이 건강상태, 과거 질병 등을 이유로 가입을 거절하기 어려운 구조임.
- 따라서 건강보험회사는 규모 확대를 통해 관리비용을 절감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음.
- 한편, 건강보험회사들은 규모의 경제를 통해 점유율이 확대되고 그만큼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면

1) A.M. Best(2015. 9. 3), "Top Insurers Looking to Diversify Operations & Revenue Streams, Increase Scale".

병원과 제약회사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와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
■ 이와 같은 미국 건강보험회사 대형화 추세와 관련하여 병원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와 건강보험회사들의 상반된 의견이 대립하고 있음.

-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은 건강보험회사 대형화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될 경우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상승하고 보장 수준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, 향후 건강보험회사 대형화에 대응하기 위해 병원 등 의료서비스 공급자들도 대형화를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.
- 건강보험회사들은 이러한 우려에 대하여 손해율 상승으로 수익성이 악화되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라고 반박함.
 - 또한, 건강보험회사 대형화는 의료서비스 공급자들과의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협상력을 가지기 위한 대안이며 이를 통해 얻는 이익은 가입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함.

■ 건강보험회사들은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도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M&A 전략을 활용하고 있음.

- 2007년 이후 건강보험시장에서 M&A 대상이 된 회사들을 종류별로 살펴보면, 건강보험회사가 전체의 61.9%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.
- 그러나 그 이외에도 M&A 대상이 된 회사에는 보험료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처방약품 또는 의료정보 등을 제공 및 관리하는 건강보험 관련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음.²⁾
- 이는 건강보험회사들이 새로운 수익원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건강보험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선별하여 인수하고 있음을 의미함.

■ 우리나라의 경우도 최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회사들의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.

- 보험영업 수지 개선을 위하여 비용절감 노력과 더불어 언더라이팅 강화, 보험사기 방지 노력 등 성장보다는 리스크 관리에 중점을 둔 경영전략이 요구되고 있으며, 건강관리 서비스 산업 활성화 등 새로운 형태의 의료비 절감 노력도 필요함.

(A.M. Best 등)

2) healthcare cost containment(5.7%), pharmacy benefit managers(1.7%), medical information systems(1.7%).